

언어구분 KOR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논문구분 원저/구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논문분야 척추

논문제목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한 **50세 이상** 여자 환자의 무증상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유병률에 관한 조사

영문제목 **Prevalence of Asymptomatic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in female patients over age 50 visiting the orthopedic outpatient clinic**

발표자 이승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책임저자 문성환

저자 윤지영, 이병호, 김태환, 이승환, 이환모, 문성환

기관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**서론 :**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의 퇴행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노령의 환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. 전체 인구 중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50세 이상 여성의 39.1%로 보고된 바 있으며, 이를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외래 환자 전체 중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 지금까지 유병률이 보고된 척수관 협착증과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및 이로 인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유병률 보고 역시 필요한 것을 판단되다. 실제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반응성과 치료 예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, 골다공증 환자 중에 기존의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이는 곧 심각한 골다공증(severe osteoporosis)로 분류될 수 있다.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에서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척추 압박성 변형의 유병률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확인하고, 이 변형의 유무가 환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시점이다.

**재료 및 방법 :**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의 퇴행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노령의 환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. 전체 인구 중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50세 이상 여성의 39.1%로 보고된 바 있으며, 이를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외래 환자 전체 중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 지금까지 유병률이 보고된 척수관 협착증과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및 이로 인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유병률 보고 역시 필요한 것을 판단되다. 실제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반응성과 치료 예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, 골다공증 환자 중에 기존의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이는 곧 심각한 골다공증(severe osteoporosis)로 분류될 수 있다.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에서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척추 압박성 변형의 유병률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확인하고, 이 변형의 유무가 환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시점이다.

**결과 :** 평균 폐경 나이는 48.8세 이었고, 폐경 후 평균 14.년이 경과하였다. 평균 체질량지수(BMI)는 23.8kg/m<sup>2</sup> 이었다. 골다공증 과거력에 대한 설문을 완성한 환자 중 약 23.1%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확인되었다. 1255명의 환자 중 약 27.6%에서 한가지 이상의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. 각각 연령대별 척추압박골절의 유병률은 42% (50대 29.5%, 60대 42.2%, 70대 63.0%)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. 또한 무증상(또는 간과된)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유병률은 17%(50대 15.9%, 60대 15.4%, 70대 19.3%)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확인된 환자의 37%(50대 19%, 60대 42%, 70대 43%)에서, 그리고 무증상의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

질이 양성이었던 환자 중 약 28%(50대 6%, 60대 38%, 70대 29%)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양성인 환자와 음성인 환자의 삶의 질지수(EQ-5D index)는 각각 평균 0.787과 0.825로 양성인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무증상 압박골절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결론 :**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중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또는 무증상 압박골절의 유병률은 각각 42%와 17%로 나타났으며, 이들 중 치료 받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각각 37%와 28%로 나타났다.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환자의 경우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만큼, 각각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또는 무증상의 압박골절 환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, 골다공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삶의 질 저하의 예방이 필요하다.

**acknowledgment :**

골다공증, 무증상, 척추 압박골절, 삶의 질

---